

K리그2 1위 광주 FC 골키퍼 윤평국

실점을 경기당 0.81... 연일 슈퍼세이브로 선두 지킴

이진형 부상으로 잡은 기회... 잇단 호수비 펼쳐
"안양전 7실점 대패 마음 단단해진 계기... 승격 향해 전진"

광주FC의 수문장 윤평국이 팀의 1위 자리를 지킨다. 광주는 지난 20라운드 안양 원정경기에서 올 시즌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20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도전했던 이 경기에서 광주는 무려 7골을 내주면서 1-7 대패를 당했다. 시즌 첫 패배가 기록됐고, 앞선 19경기까지 '8'로 묶였던 광주의 실점은 '15'로 치솟았다. 당달아 15경기 6실점으로 0.40의 실점률을 자랑하던 골키퍼 윤평국의 실점률도 0.81로 상승했다. 충격적으로 무패행진이 끝나면서 광주의 다음 행보에 K리그 팬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안방에서 수원FC를 상대한 광주는 이내 패배를 추스르고 원래의 모습대로 경기를 풀어갔다. 전반전 몇 차례 골 찬스는 놓쳤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윌리안이 '0의 균형'을 깨는 멋진 슈팅을 선보였고, 후반 45분에는 펠리페가 수비에 마침표를 찍는 추가골을 터뜨렸다.

경기가 2-0으로 끝나면서 광주는 다시 승격을 향한 승점 사냥을 재개했다. 득점을 기록한 외국인 선수에 눈길이 쏠렸던 이 경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윤평국이었다. 후반 25분 코너킥 상황에서 윤평국은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안병준의 슈팅을 쳐내면서 아찔했던 실점 위기를 막았다. 그리고 후반 39분 역습 상황에서 나온 아니에르의 슈팅도 쳐내면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윤평국의 슈퍼세이브에 힘입은 광주는 기본 좋은 무실점 승리로 우려의 시선을 털어내고 승격 도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윤평국도 앞선 경기의 아쉬움을 털고 '수문장 싸움'에 불을 붙였다. 광주는 '베테랑' 이진형으로 시즌을 출발했었다. 지난 1월 광주 유니폼을 입은 9년 차 이진형은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광주의 초반 질주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4경기를 2실점으로 막으며 수비의 중심에 섰던 이진형은 5라운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수비수 김진환과 충돌하면서 안와

골절과 함께 광대뼈, 턱뼈까지 골절되면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상으로 광주의 수비에 비상이 걸렸지만 윤평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윤평국은 잇단 호수비로 광주 '잔물 수비'의 중심이 됐다. 그리고 안양전 7실점으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바로 이어진 경기를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박수를 받았다. 윤평국은 "안양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보약으로 생각하고 임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라며 "한 주를 준비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윤평국의 말대로 안양전 대패는 "좋은 보약"이었다. 윤평국은 "개인적으로 최소실점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대량 실점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도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면서도 "선수들끼리 지금 20경기에서 1패를 한 것 뿐이고 승격으로 가는 길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생각으로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승격을 위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골키퍼 윤평국이 지난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1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후반기 시작 하자마자 또 부상 경보



KIA 김선빈 손가락·김주찬 허리 통증에 라인업 교체
이인행은 SK전 경기 도중 부상... 내외야 보직 변동
선수들 잦은 부상 성적에 직격탄... 관리·운영의 묘 필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부상 관리'가 KIA 타이거즈의 숙제가 됐다. KIA는 지난 30일 SK와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부상'으로 몇 차례 고민을 했다. 이날 경기를 위해 KIA는 김주찬(1루수)-김선빈(유격수)-터너(우익수)-최형우(좌익수)-안치홍(2루수)-유민상(지명타자)-이창진(중견수)-한승택(포수)-박찬호(3루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이창진이 1번 자리에 배치됐고, 박찬호도 3루수가 아닌 유격수로 2번 타자로 나섰다. 부상으로 인한 라인업 변동이 이뤄졌다. 김선빈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평소 훈련 도중 공을 잡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쳤다. 김주찬은 허리 통증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경기 도중에는 이인행이 SK 박희수의 공에 왼팔을 맞으면서 교체됐다. 경기는 이창진, 박찬호의 호수비 행진과 선발 양현종의 7이닝 무실점 호투 속 2-0 승리로 마무리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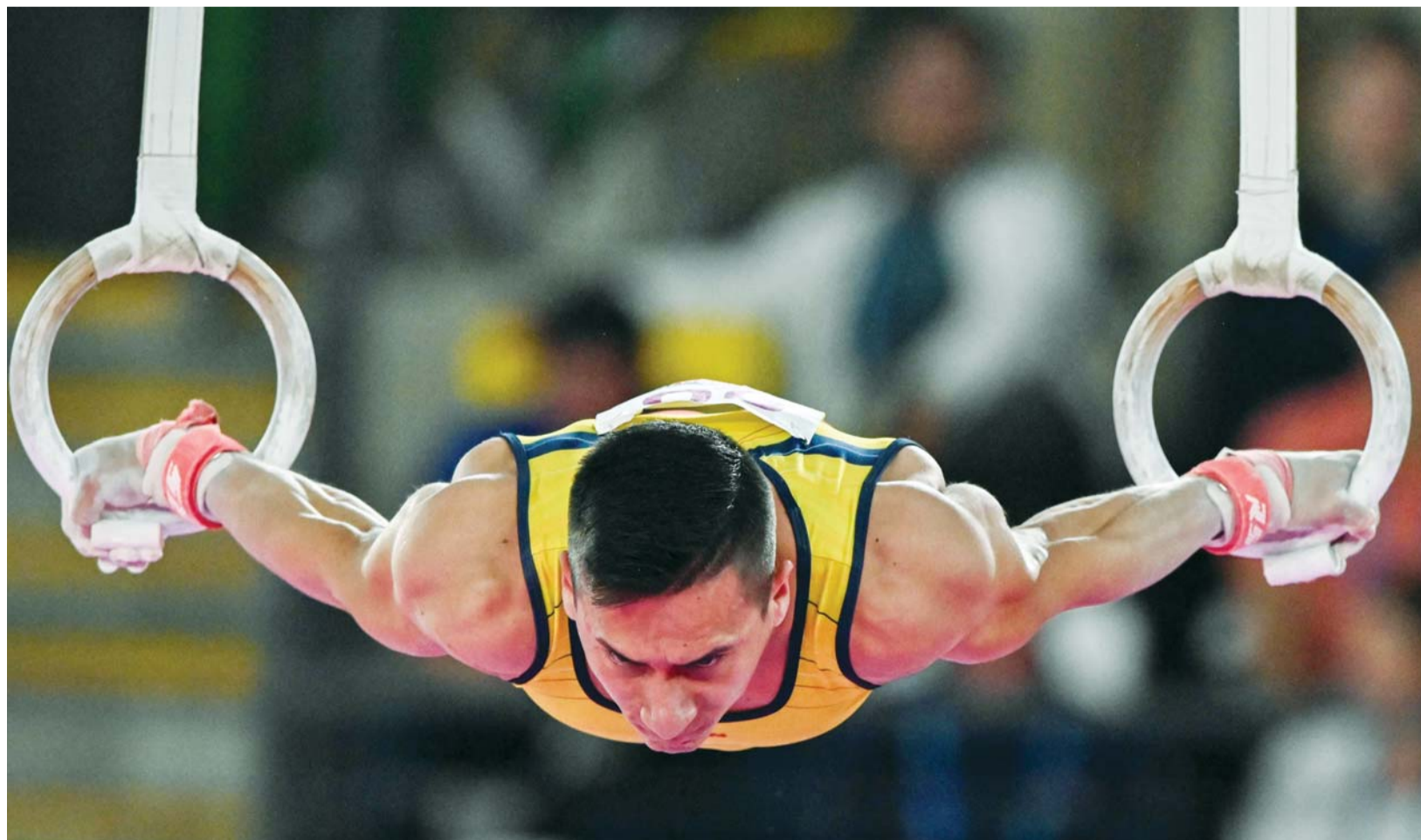
지만, 부상이라는 고민이 남았다. 이날 경기까지 KIA는 97경기를 소화했다. 김선빈은 올 시즌 82경기, 김주찬은 68경기에 출장했다. 지난 4월 5일 두 사람은 허벅지, 허리 통증으로 나란히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김주찬은 지난 5월 9일에는 수비 도중 우측 손바닥 타박상을 입었고, 경기 출장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5월 12일에 엔트리에서 빠졌다. 두 사람은 지난 31일 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주축 내야수 두 명이 부상으로 정상 가동이 어렵게 되면서 KIA는 이날 외야수 이인행을 엔트리에서 빼고 내야수 오정환을 불러들였다. 전략적인 운영의 일환이 아니라 부상에 따른 폴업이다. 물론 시즌을 보내면서 부상은 늘 운영의 변수로 존재한다. 하지만 올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 부진까지 겹치면서 '부상'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선수들은 '부상도 실력이다'를 보여줘야 하고, 벤



김주찬

치는 부상 여파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엔트리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한편, 사구로 교체됐던 이인행은 병원 검진 결과 단순 타박 진단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미스터' 평행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메리카대륙 국가들간의 종합스포츠대회 팬아메리칸게임에서 콜롬비아의 디디에 루고가 예술체조 남자 링 결승에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80% "이제 호날두 응원 안 해"

리얼미터 설문... 25.3% "노쇼 책임 프로축구연맹에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 사태 이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앞으로 그를 응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31일 나왔다. 26일 열린 호날두의 소속팀 유벤투스(이탈리아)와 한국프로축구 '팀 K리그' 간 친선경기에서 호날두가 결장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MBC스포츠플러스의 의뢰를 받아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팬심 변화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 '향후 호날두를 응원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이 79.4%로 나타났다.

'향후에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기존에 호날두의 '팬이었다'(45.9%)와 '팬이 아니었다'(42.8%)는 응답자가 비슷하게 집계된 가운데 기존 팬이었다는 230명 중에서는 85.6%가 팬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호날두의 '노쇼'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 주최 측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크다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결장한 호날두'라는 응답이 22.7%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라는 응답은 18.3%, '행사를 주최한 터페스타'라는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세메냐, 남성호르몬 낮춰야 세계대회 출전"

스위스 연방법원 6월 결정 번복

스위스 연방법원은 56일 만에 생각을 바꿔 '캐스터 세메냐(28·남아프리카공화국)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야 육상 8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세메냐는 2012년 런던올림픽, 2016년 리우올림픽 육상 8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남아공 여자 육상 간판스타. 중저음 목소리와 근육질 몸매 등으로 10년째 '성별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지난 30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세메냐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여자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2km) 경기에 나서려

면 약물 투여 등의 조치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5nmol/L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메냐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매우 실망스럽다. 세계선수권대회 800m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출전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여자 선수의 인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세메냐와 IAAF의 법적 다툼은 올해 육상계의 가장 큰 이슈다. 세메냐의 주 종목 800m 출전 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결정이 바뀌었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56일 만에 생각을 바꿔 IAAF의 손을 들었다. 도하 세계선수권은 9월 27일에 개막한다. 세메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물 투여를 해야 주 종목인 800m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